

# 원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 기업 추가 지원책 제공

정부·재계, 중동 현안 관련 긴급간담회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행위 특별점검  
및, 대미투자특별법 조속 처리 요청

중동 정세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공식 발령했다. 당정은 재계와 중동 현안 관련 긴급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 단계로 운영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과 국민생활·국가경제에 대한 파급력 등을 종합 고려해 발령된다.

이번 조치로 원유와 가스 분야별 대응책이 추진된다. 원유는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사전 준비, 석유 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이 추진된다. 오는 6일부터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동 현안 및 대미 관세 협상 관련 더불어민주당-재계 긴급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간담회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HD현대오일뱅크, SK, GS칼텍스, 한화오션 등 관계 기업이 참석했다. /뉴시스

계부처 합동 단속이 강화된다.

가스의 경우 카타르산 LNG 도입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선다.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 포트폴리오 기업을 통한 현물 구매 전략을 추진하고, 자가소비용 직수입사의 잉여 물량을 국내 수급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아울러 가스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해외 LNG 사업에서 확보한 추가 물량의 국내 우선 도입도 검토한다.

이에 앞서 한정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계 인사 긴급 간담회에서 "중동에서 일어나는 지정학적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관세 압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재경위와 대미투자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런 때일수록 신속하고 구체적인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

요하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도한 김영배 의원은 "우리나라 원유의 70% 정도가 중동에 의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철저히 챙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을 맡은 안도걸 의원은 "당장 대응해야 하는 게 에너지 문제"라며 "원유의 70%, 액화천연가스

(LNG)의 20%가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들어오는데,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 큰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당장 에너지 해운 등 산업은 물론 대중동 수출, 중동 프로젝트 등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석경수 인턴기자



gws0325@metroseoul.co.kr

metro

>> 1면 '하루만에 9.63%'서 계속

## 한은, '1500원대 환율' 진화나서... "달러 유동성 풍부"

'외환보유·가산금리·CDS' 안정 강조  
유가 충격 여전... 구조적 불안 우려도

원·달러 환율이 역외·야간 거래에서 1500원선을 터치하자 한국은행은 "달러 유동성이 풍부하고 대외차입 가산금리와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안정적"이라며 '방어 논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렇지만 원화가 반등했음에도 중동발 유가 충격이 이어지는 만큼, 이번 환율 급등의 본질이 '유동성 검색'이 아니라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면 변동성은 재점화될 수 있다는 반문이 남는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4일) 원·달러는 역외·야간 거래에서 한때 1505.8원까지 치솟아 17년 만의 약세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날 코스피는 12.06% 급락해 5093.54로 마감하는 등 주가와 환율이 함께 흔들려 '리스크오프'가 전면화했다. 5일 들어서는 코스피



5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들여보이고 있다. /뉴시스

가 급등하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은이 강조한 '3개 방어선'은 위기의 성격을 가르는 지표들이다. 달러 유동성은 기업·금융기관이 달러를 구하지 못해 결제·조달이 막히는 검색 여부를 뜻한다. 대외차입 가산금리는 한국이 달러를 빌릴 때 붙는 추가 비용(스프레드)이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 신용위험에 대한

보험료로, 급등할수록 시장이 '위기 프리미엄(리스크 프리미엄 확대)'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의 메시지는 "지금 은 조달 검색형 위기와는 다르다"는 진단에 가깝다.

'유동성' 근거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도 나왔다. 한은에 따르면 2월 말 외환보유액은 4276억2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17억2000만달러 증가해 3개월 만에 반등했다. 한은은 "ESF 외화채 발행과 투자 수익이 증가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율 급등의 뿌리가 유동성 부족이 아니라 '위험회피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실제로 유가 충격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브렌트유는 83달러대(83.07달러), WTI는 76달러대(76.60달러)로 상승했고, 글로벌 시장은 에너지 공급 제약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달러지수는 98.81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유가

가 다시 물가 기대를 밀어 올리면 '달러 강세→원화 약세' 압력은 재점화될 수 있다.

관건은 1500원선이 '일회성 공포'였는지, 아니면 에너지·지정학 리스크가 만든 프리미엄이 구조적으로 커진 신호였는지다. 원화 강세가 이어지더라도 유가·리스크오프가 재점화될 경우 환율은 다시 속도와 쏠림의 시험대에 오를 수 있어, 한은이 내세운 방어선(유동성·스프레드·CDS)이 실제로 유지되는지에 시장의 시선이 모인다.

최예찬 상산증권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중동 무력 이슈 발생 후 원·달러 환율은 90일 전후까지 쉽게 레벨을 낮추지 못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며 "이번 분쟁의 장기화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환율은 한동안 높은 수준의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 반복되는 급등·급락 시장 공포심리 확산

지수 상승에 대한 두 기업의 기여도는 전체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코스피는 지난해 말 4200대에서 마감한 뒤 지속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연초 이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전인 지난달 27일까지 상승률은 48%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에 기여한 비율(시가총액 기준)은 각각 약 33%와 20%였다. 두 기업의 기여도를 합하면 약 53%로 거의 절반 수준이다. 두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급에 코스피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코스피 개인투자자 비중(거래량 기준)이 올해 기준 약 67%로 해외 주요국보다 높은 점도 한몫한다. 코스닥은 78%로 더 높다.

여기에 상장지수펀드(ETF)와 선물 연계 프로그램 매매 등 기계적 거래가 늘어나면서 변동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원·달러 환율도 널뛰기했다. 3월 26.4원(오전장 마감 기준) 뛰더니 전날 야간 거래 때는 장중 1500원을 넘어섰다. 이날은 방향을 틀어 1468.1원(오후 3시 30분)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브레이크를 걸기에는 연료가 너무 활활 타오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4일 132조682억원에 이른다. 신용거래용자액은 33조1978억원에 달한다.

한편 널뛰는 증시에 공포 심리도 확산하고 있다. 한국형 공포지수인 코스피 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이날 73.70를 기록했다. 지수가 상승하자 6.66% 하락했다. 지난 4일엔 80.43까지 치솟기도 했다. 통상 40을 넘어서면, 급격한 주가 변동 가능성이 있는 '공포 구간'으로 해석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전력·전선업체, 직원 재택근무·물류 경로 확보 등 리스크 대응

업계 "단기 사업 차질 가능성 제한적"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전력기기 업체가 현지 사업 상황 점검과 안전 관리에 나섰다. 현지 인력 안전 확보와 함께 물류 및 장비 운송 등 사업 영향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모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 등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에서 송전망과 변전 설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동은 전력 수요 증가와 산업·

도시 개발 확대에 따라 송·변전 설비 투자가 이어지는 지역으로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의 주요 해외 시장으로 꼽힌다. 특히 초고압 변압기 등 대형 전력 설비는 중량이 수십 톤에서 수백 톤에 달해 국제 프로젝트에서는 해상 운송을 통해 현지로 인도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할 경우 장비 운송 일정이나 납품 계획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들은 현지 인력 안전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중동 지역 근무 직원들의 안전을 고려해 재택근무

를 권고하는 등 상황 관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중공업 역시 중동 지역 근무자에 대해 안전 관리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이란 사태와 관련해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선 업체도 상황 관리에 나서고 있다. 대한전선은 중동 지역 주재 인력에 대해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등 임직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중동 전력 인프라 사업이

대부분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만큼 단기적인 사업 차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해상 운송 차질과 물류비용 상승 등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력기기 사업 자체에 큰 차질은 없지만 중동 지역이 유럽으로 향하는 주요 물류 경로와 연결돼 있는 만큼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해상 운송 차질과 운임 상승, 물류비 증가 등이 발생해 전력 건설과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포함한 산업 프로젝트 일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